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새시대
http://www.motie.go.kr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계무역기구과 김진동 과장(044-203-5630), 황보영 주무관(044-203-5637)

WTO, 세계 무역 성장률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세계무역기구(WTO)는 '14.4.10(월) 호베르토 아제베도 사무총장의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및 2014년(전망) 세계 교역 성장률을 발표

[2013년 세계무역 성장률]

□ 2013년 세계 교역량 성장률은 2.1%로, 2012년 2.3% 성장에 비해 낮은 수준에 그치지만, 2014년은 4.7%, 2015년은 5.3%의 완만한 (modest)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2013.9월 WTO는 2013년 및 2014년 성장률을 각각 2.3% 및 4.5%로 전망

<2011 ~ 2013년 주요 경제권 GDP, 상품무역 성장률(%)>

지역	GDP			수출			수입		
	'11	'12	'13	'11	'12	'13	'11	'12	'13
세계	2.8	2.3	2.2	5.5	2.4	2.4	5.3	2.1	1.8
미국	1.8	2.8	1.9	7.1	4.0	2.6	3.8	2.8	0.9
EU(28국)	1.7	-0.3	0.1	5.8	0.5	1.7	2.8	-1.9	-0.8
아프리카	1.1	5.7	3.8	-8.4	6.5	-3.4	5.1	12.7	4.0
중동	5.7	3.4	3.0	7.8	5.3	1.5	4.5	11.1	4.4
아시아	4.1	4.0	4.2	6.4	2.7	4.6	6.7	3.6	4.4
- 중국	7.7	7.7	7.5	8.8	6.2	7.7	8.8	3.6	9.9
- 일본	1.4	1.6	1.5	-0.6	-1.0	-1.8	4.3	3.8	0.6
- 인도	3.2	4.4	5.4	15.0	0.2	7.0	9.7	6.8	-3.0
- 신흥4개국*	4.1	1.8	2.7	7.8	1.4	3.4	2.7	1.4	3.4
선진국 평균	1.5	1.3	1.1	5.2	1.1	1.5	3.4	0.0	-0.2
개도국·CIS국 평균	5.7	4.5	4.4	5.8	3.8	3.3	8.1	5.1	4.4

* 아시아신흥 4개국 : 한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 자료: WTO사무국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교역액 기준으로는 2013년 세계 상품 수출은 전년대비 2% 증가한 18.8조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가 2013년 2분기 들어 모두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했으나, 철강분야는 4분기까지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함

□ 서비스는 전년대비 6% 성장한 4.6조 달러를 기록, 2013년 세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20%를 차지하고, 분야별로는 보험, 컴퓨터·IT, 금융서비스 부문 성장이 두드러지고, 건설 분야는 전년대비 감소

□ 2013년 세계무역 성장률 부진 원인으로는, 미국의 경기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EU 경기침체 영향, 유로존 실업률 문제(독일 제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지적

[2014년 세계 무역 성장률 전망]

□ 2014년 전망치 4.7%는 WTO가 지난해('13.9월) 발표한 전망치인 4.5%를 상향 조정한 것으로, 미국 경기 회복이 동력을 얻고 있고, EU도 회복세에 들어서는 등 호전된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 4.7% 성장률도 여전히 지난 20년간 평균값인 5.3%('90년 이래 '08년 세계 금융위기 전까지 평균값 6.0%)에는 못 미치는 수준

* 세계 무역에 대한 전망은 시장추정 세계경제 성장률 2014년 3.0%, 2015년 3.1%를 기초로 산정

○ 무역 성장률 전망치 관련 선진국발 리스크 요인(유럽 국가 채무 문제, 재정건전성 관련 미국내 정치적 대치 등)은 상당부분 개선된 반면,

○ 개도국은 인도, 터키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 아르헨티나 통화 위기 등 불확실성이 증가했으며, 중동, 아시아,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고려 필요

<지역별 2014년 무역 성장률 전망치>

구 분	총교역	선진 경제권	개도국 및 CIS	북미	중남미	유럽	아시아	기타
수출	4.7%	3.6%	6.4%	4.6%	4.4%	3.3%	6.9%	3.1%
수입		3.4%	6.3%	3.9%	4.1%	3.2%	6.4%	5.8%

* 자료: WTO 사무국

□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세계 경기 회복에 따라 무역 성장률이 차츰 예전 수준을 되찾을 것이지만, 이를 가만히 기다리기보다 무역규범·협정을 재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무역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WTO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 DDA가 타결될 경우, 세계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언

[무역성장률과 경제성장률 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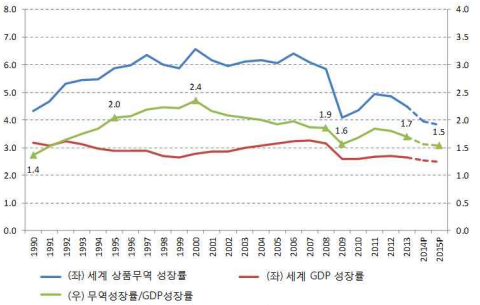
□ 그간 세계 무역은 세계 경제보다 2배가량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왔으나, 2013년에는 비율이 1.7:1까지 하락

○ 단, WTO는 양 지표의 성장 속도 차이 문제는 생산 공급망, 교역품 구성의 변동,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인 요인의 작용, 심각한 수준의 경기 부진에 따른 단순 순환적인 상황일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 일반적으로 경기가 부진하면 무역이 퇴조를 띤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가 호전된다고 해서 예전의 비율을 회복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1990년 ~ 2015년 10년 이동평균 세계무역 및 GDP 추세>



* 2014, 2015년은 예상치, *자료: WTO 사무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황보영 주무관 (☎ 044-203-563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3년 상품/서비스 주요 교역국(EU내 교역 포함)**

*자료: WTO 사무국

<상품>

순위	수출국	수출액 (10억$)	비중(%)	전년비 (%)	수입국	수입액 (10억$)	비중(%)	전년비 (%)
1	중국	2210	11.8	8	미국	2331	12.4	0
2	미국	1579	8.4	2	중국	1950	10.3	7
3	독일	1453	7.7	3	독일	1187	6.3	2
4	일본	715	3.8	-10	일본	833	4.4	-6
5	네덜란드	664	3.5	1	프랑스	681	3.6	1
6	프랑스	580	3.1	2	영국	654	3.5	-5
7	한국	560	3.0	2	홍콩	622	3.3	12
8	영국	541	2.9	15	네덜란드	590	3.1	0
9	홍콩	536	2.9	9	한국	516	2.7	-1
10	러시아	523	2.8	-1	이탈리아	477	2.5	-2

*수출·입 합계시 한국 9위

<서비스>

순위	수출국	수출액 (10억$)	비중(%)	전년비 (%)	수입국	수입액 (10억$)	비중(%)	전년비 (%)
1	미국	662	14.3	5	미국	427	9.8	3
2	영국	290	6.3	1	중국	329	7.6	17
3	독일	287	6.2	8	독일	315	7.2	7
4	프랑스	233	5.0	8	프랑스	188	4.3	8
5	중국	207	4.5	9	영국	173	4.0	-1
6	인도	153	3.3	5	일본	161	3.7	-8
7	스페인	144	3.1	5	인도	127	2.9	-1
8	일본	144	3.1	1	러시아	123	2.8	19
9	네덜란드	142	3.1	8	싱가포르	122	2.8	4
10	홍콩	135	2.9	7	네덜란드	121	2.8	1
-	-	-	-	-	-	-	-	-
13	한국	112	2.4	1	한국	106	2.4	1

*수출·입 합계시 한국 12위

※ 우리나라 관련 내역 (우리나라 교역순위는 전년과 동일함)

구 분	수출 (금액, 총교역 대비 비중)		수입 (금액, 총교역 대비 비중)	
	전세계 교역	EU내 교역 제외시	전세계 교역	EU내 교역 제외시
상품 교역	**수출 7위** (5,600억불, 3%)	**수출 5위** (5,600억불, 3.7%)	**수입 9위** (5,160억불, 2.7%)	**수입 6위** (5,160억불, 3.4%)
서비스 교역	**수출 13위** (1,120억불, 2.4%)	**수출 8위** (1,120억불, 3.2%)	**수입 13위** (1,060억불, 2.4%)	**수입 8위** (1,060억불, 3.2%)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